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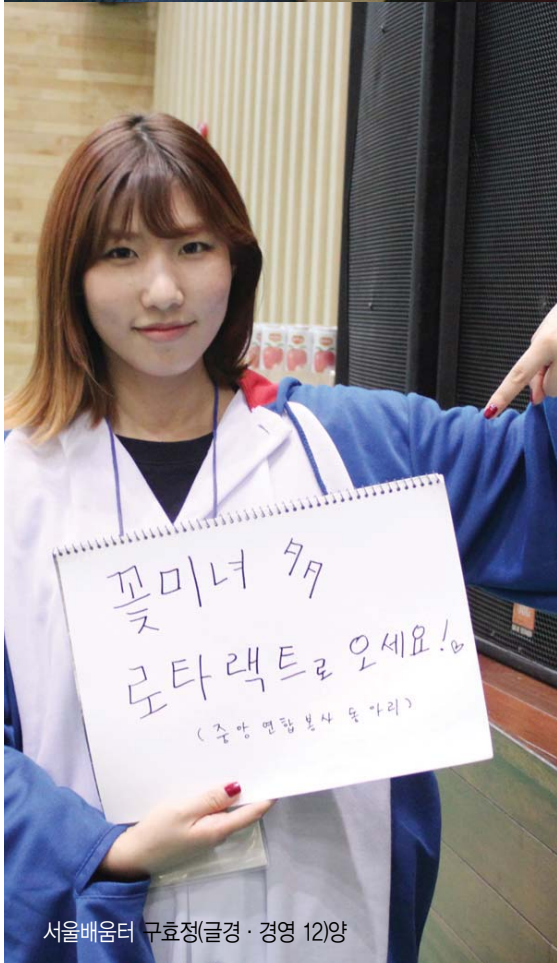


글로벌배움터 복사실 이동훈, 김소연 선생님

우리학교 박철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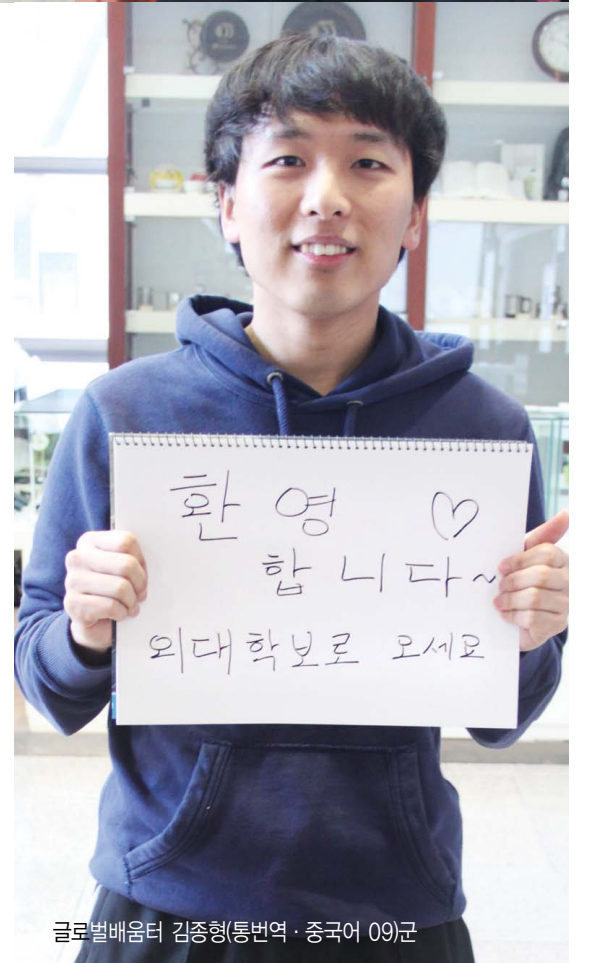
글로벌배움터 우리은행 권기석 과장

서울배움터 도서관 장일선 선생님



서울배움터 구효정(글경·경영 12)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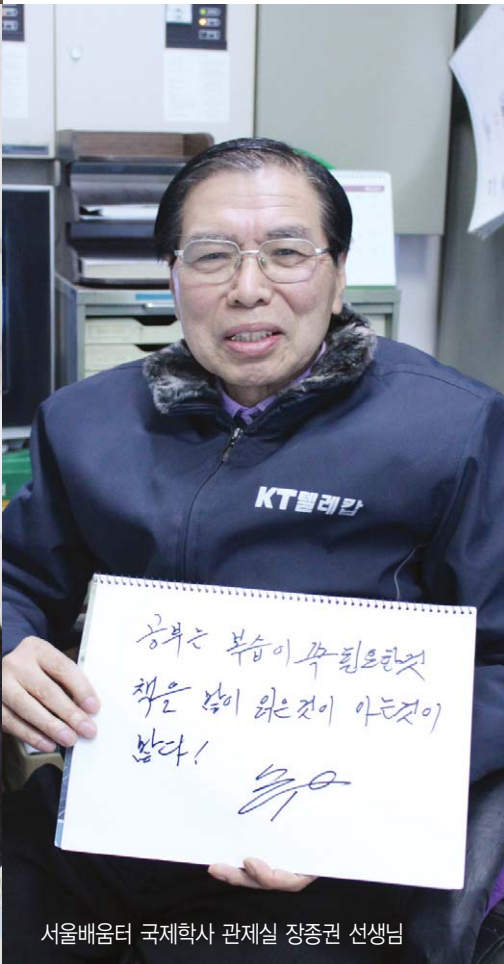
“13학번 새내기,
당신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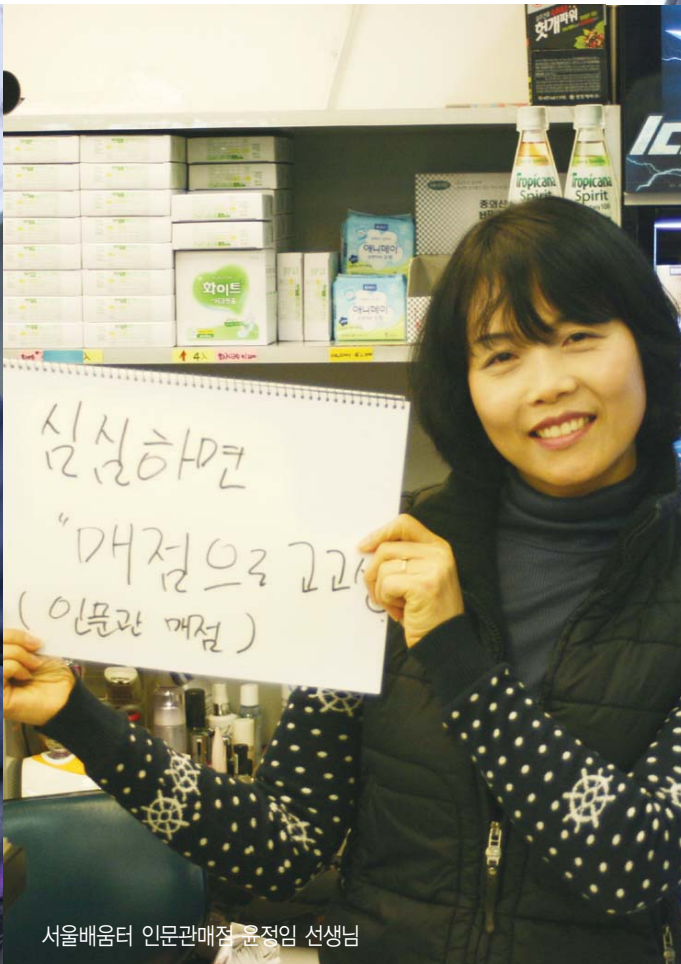
글로벌배움터 김종형(통번역·중국어 09)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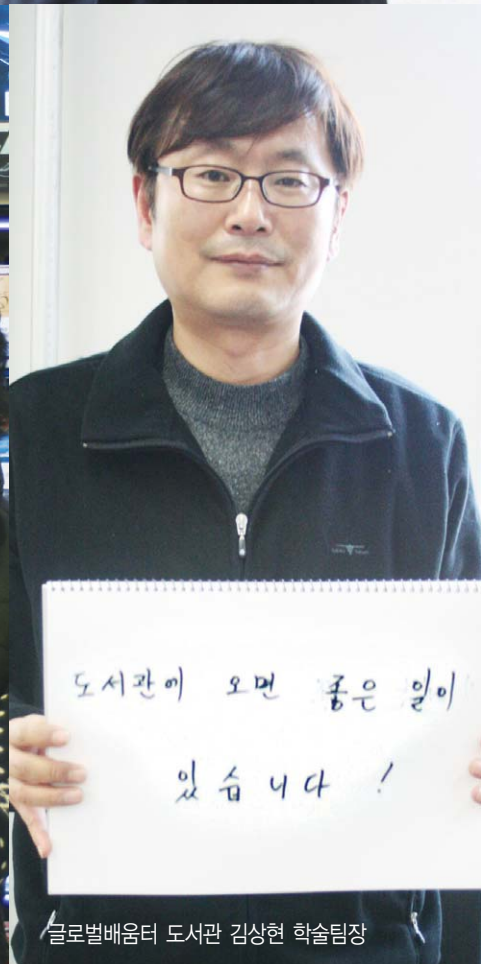
서울배움터 오석환(사회·자전 09)군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관제실 장종권 선생님



서울배움터 인문관매점 윤점임 선생님



글로벌배움터 도서관 김상현 학술팀장

학내 브리핑

건물 내에서 담배피지 마세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우리학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기준」에 의하면 기존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등에만 적용됐던 금연구역이 대학 시설 전체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8일(토)부터 시행됐으나 우리학교의 경우 학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에 보건진료소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건물 내에서는 금연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숙사식 0식부터 160식까지, 당신의 선택은?

이번 학기부터 글로벌배움터 기숙사의 식권제도가 의무에서 선택식으로 탈바꿈한다. 한끼 당 2500원에 140개가 의무였던 지난 해에는 식권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사생들의 불만이 나왔다. 때문에 기숙사는 효율적인 식권운영을 위해 이번 해부터는 선택한 식권수에 따라 끼니 당 식비를 달리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3200원씩 100식 △2800원씩 120식 △2500원씩 140식 △2400원씩 160식의 범위에서 원하는 식권수를 선택해 신청하도록 바뀌었다. 한편 미리 신청하지 않고 식권자판기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는 한 끼당 3500원의 비용이 든다.

새내기들! 수강신청 놓치지 마세요

이번 달 25일(월) 2013학년도 신·편입생 수강신청이 있다. 양 배움터에서는 수강신청에 앞서 처음 강의를 선택하는 신입생을 위한 일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수강신청은 당일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더불어 강의시간표 조회 및 학사 관련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편람 열람은 홈페이지의 'Hot lin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	서울 13:00~16:00 글로벌 10:00~16:00
수강신청변경 기간	3월 4일(월)~8일(금)
수강신청취소 기간	4월 8일(월)~12일(금)

만평 김경보 5

우리학교를 빛낸 8명의 동문들

지난 달 28일(월)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총동문회 신년회와 함께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이 있었다.

외대인상은 한 해 동안 우리학교와 동문회의 위상을 드높인 동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선정에는 정성태(포르투갈어 72) 사업이사를 비롯한 6명의 동문이 함께 했다. 수상자 선정은 2주 동안 동문들의 추천을 받아 각 항목별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 과정을 거친 결과,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2명 △특별공로상 3명 △공로상 3명으로 총 8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에는 박철(스페인 68) 총장과 송용덕(영어 73) 호텔롯데 대표이사 수상 영예를 안았다.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외대인이라는 자부

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특별공로상에는 △한형곤이태리어 63 우리학교 명예교수 △최현규(행정 68) 다우와 키움건설 대표이사 △조원진(정의 84) 새누리당 국회의원 수상했다. 한형곤 명예교수는 출타 중으로 아들 한석준 KBS 아나운서가 대리 수상했다. 공로상은 △민병조(법학 72) (주)RBM 총괄 사장 △노승환(태국어 81) 삼성전기 인사팀장 △김상국(마인통번역 84) (주)비타민하우스 대표가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과 더불어 열린 신년 모임에서는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총동문회의 활동보고가 이어졌으며 특히 재학생을 위한 동문장학금의 전달이 동문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권순한 총동문회장은 “모든 동문이 힘을 모아 학교를 돕고 각



▲자랑스런 외대인상 수상자와 시상자가 수상을 기념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송용진 호텔롯데 대표이사, 권순한 총동문회 회장, 박철 총장.



▲권순한 총동문회 회장이 박철 총장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자 분야에서 활약을 펼친다면 모교는 과거의 영광 이상으로 도약하여 자긍심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모든 동문의 숙원사업인 동문회관 건립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후 장웅(경영대학원 97)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는

케이 커팅, 축배를 비롯한 만찬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재학생 통기타 동아리 노래나래의 축하공연으로 인해 재학생과 동문 사이의 돈독함이 다져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끝으로 250여명의 참여동문들의 교가제창으로 신년회 모임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새 학기 등록금 동결 확정 학습 환경 개선에는 우선적 지원

우리학교는 2013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15일(화)부터 21일(월)까지 이번 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3차에 걸쳐 열렸다. 그 결과, 학생대표단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학생경비나 장학금 등의 학생지원비 삭감을 없애고 7+1제도 지원금이나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등을 확충하기로 학교 측과 합의했다. 또한 학교 측은 추경예산 편성시 발생될 추가 수입분에 대해서는 '학생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개선안'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대표단은 타 대학보다 높은 등록금 의존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평균 35.6%에 달하는 타 대학에 비해 우리학교가 8%로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타 대학 평균의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 및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학교의 적

립금 △1+3 특별전형의 순수익액 △본분교통합으로 인해 증액된 국고지원금을 통해 학생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금 인하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번 해 우리학교 등록금이 동결된 이유는 글로벌캠퍼스 신본관 건설에 많은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신본관 건설에는 총 330억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110억원이 적립금에서 지출됐다. 학교 측은 우리학교의 예산운용을 볼 때 3%가량을 인상시켜야 올해 운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동결을 하자고 제시했다.

등록금 동결이 결정된 뒤, 서울배움터 비대위 및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향후 학교 측에 제출할 교육환경개선안 및 학자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 상경대의 경우 사회과학관 화장실이나 책·결상 및 냉·난방시설개선 등을, 영어대의 경우 교류학습 확대와 교환학생 인원 충원을 요구할 것이다.

양재상·이은결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이곳에 내 길이 있나요?

수험생 적성 찾아주는 강좌 열려



▲오바마 홀에 모인 고등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이날 온 학생 및 학부모의 수는 3200여명에 달했다.

평소에는 한산했던 서울배움터 교정의 토요일 오후가 전국에서 찾아온 고등학생들로 떠들썩했다. 이는 이번 달 2일(토)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전국의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2013 한국외대 전공탐색 강좌' 때문이다.

행사의 1부는 박철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유기환 입학처장의 '우리학교 소개' △이석록 입학사정관실장의 '입학사정관제 대비 전략' △박진우 글로벌경영대 교수의 '전공 선택과 진로' 특강으로 끝났다. 미네르바 룸

플러스 오바마홀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행사는 수용인원을 넘겨 국제회의실과 애경홀까지 추가로 개방해 진행됐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일대일 상담이 있었다. 서울배움터 15개 학과, 글로벌배움터 7개 단과대 단위로 나눠져 이뤄진 상담에서는 해당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직접 조언자의 역할을 했다. 마지막 3부 행사는 입학사정관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상담으로 꾸며졌다.

입학사정관실의 이훈호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만의 다양한 전공과 우수한 커리큘럼을 홍보하고 수험생들의 올바른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해 열렸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한 행사는 8시를 넘기는 늦은 시간까지 진행돼 성공적으로 그 막을 내렸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생 모집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모집과정

계열	과목명	모집인원
실무능력 Up-skilling 과정	비즈니스 성공 리더십, 마케팅 매니저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증권시장의 이해, e-비즈니스, 무역비즈니스	과목별 30명
전문가 과정	독서논술 지도사과정, 통합논술 지도사과정, 입학사정관 전형 컨설팅전문가 과정, 귀농과 농업경영 전문가 과정	
웰빙/힐링 과정	인문학 판타지(술, 음악, 손자병법), 대인 관계의 심리학, 운영학과 건강, Abundant Life(영어성경), 웰빙 운동과 건강(이론 및 실습), 레크리에이션, 정신건강과 명상치유	
지역문화 과정	중동 및 이슬람문화의 이해,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해, 유럽문화의 이해	
교양/취미 과정	수상스키, 캠핑과 야영, 사물놀이, 댄스스포츠, 필라테스(균형 잡힌 체형을 위한 요가), 한국무용(태평무), 라인댄스	
외국어 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 45개 외국어 과정을 별도로 개설 중	15명 이내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령에 의한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3. 2. 4(월) ~ 2. 22(금)
- 교육기간 : 2013. 3. 4(월) ~ 6. 21(금)
- 교육시간 : 3시간/1주, 총 45시간/15주
- 수강료 : 21만원 + 실습과목인 경우 실습비 (재학생 및 동문 할인 30%, 147,000원)
- 접수처 :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 홀 명명식

지난 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학교를 방문해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홀에서 연설을 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를 기념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강당의 이름을 오바마 홀로 바꾸는 '오바마 홀 명명식'이 지난 달 14일(월)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컴플렉스(Minerva Complex)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브렌트 바이어스 주한 미 대사관 공보참사관,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순환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등의 외빈이 참석했다. 사진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박철 총장. 오른쪽은 오바마 홀의 동판이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배움의 기회는 언제나 여기에 우리학교 평생교육원 개원

우리학교 평생교육원이 다음 달부터 출범한다.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들에게 여러 강좌들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와 수준 높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크게 △실무 능력 Up-skilling △전문가 △웰빙/힐링 △글로벌 문화 △교양취미의 다섯 가지 과정으로 나뉘며 총 27개의 강좌가 개설돼 있다. 이 강좌들은 수강생들에게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중 전문가 과정에 있는 '기능과 농업경영 전문가 과정' 강좌는 은퇴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강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양취미 과정에 '사물놀이' 강좌도 종종 외부로 사물놀이를 배우러 갔던 외국학

생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대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는 졸업 예정인 만 18세 이상의 일반 성인이며, 그 연령층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강료는 실습비를 제외하면 각 강좌당 21만원이고 우리학교 동문과 재학생은 3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다음 달 4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주 3시간으로 총 15주 동안 진행되며, 이번 달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접수할 수 있다. 장병욱 평생교육원장은 "아직은 미미한 시작단계에 있지만 우리학교만의 특성을 살려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싶다"며 "향후에는 재학생들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노천극장, 역사 속으로

잔디광장 조성 뒤 결정사안은 계속 논의 중

지난 달부터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는 노천극장 전체를 철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노천극장은 지난 해부터 낙후된 시설로 인해 안전성의 문제가 드러나 개·보수공사 또는 철거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그러나 학교 측과 학생 측이 자치공간 보장이나 철거 이후 노천극장 터 사용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해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그러던 중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학교 측이 합의를 이뤘다. 공사를 시작했다. 건설기획팀에 의하면 부지에 흙을 메우는 작업까지 포함한 노천극장 철거공사는 이번 달 말에 완료될 계획이며, 이후 그 자리에는 3~4월 안으로 잔디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학교 측과 비대위는 노천극장의 철거와 이후 부지의 사용대책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했다. 문서에서

는 '학생들이 결집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와 '잔디광장을 없애고 그 부지 위에 다른 건물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학생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김재준 건설기획팀장은 "노천극장이 철거된 뒤에도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나무계단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천극장 철거 뒤 활용방안에 대해 비대위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잔디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외에 제2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에 찬성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4일(월) 열린 비대위 중문위에서는 '잔디광장을 없애고 그 부지 위에 다른 건물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학생들이 찬성할 경우 건

물을 건설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했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진원(영어·영문 11) 군은 "노천극장과 그 안의 공간이 사라진다는 점이 아쉽고, 철거를 한다면 학교 측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복지처에서는 총학생회 측이 필요할 경우 오바마 홀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하는안을 제시했고, 비대위에서는 이에 대해 동의했다. 김범(국제 11) 비대위원장은 "노천극장에서 소음유발이 큰 행사들은 학생들의 반발로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바마 홀에서 행사를 진행해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오바마 홀 무료 대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철거하기 전 노천극장의 전경.

단과대 별로 대여 횟수를 제한하거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학교가 대여를 허가하는 대여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정확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은 이후 학교 측과 비대위 가 협의할 예정이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FINANCIAL SOLUTION
Data News Analytics

“인포맥스와 함께 금융시장의 리더가 되십시오.”



연합인포맥스
www.einfomax.com

아카데미 버전 사용 문의처
(02) 398-4943, (02) 398-4979

갈 찍은 2013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감을 갖기 마련이다. 지난 해 힘든 수험생활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할 새내기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학교 13학년 새내기들은 앞으로 펼쳐질 대학 행사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 처음 겪는 모든 행사들이 신기하고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지난 외대학보에 실린 사진과 함께 우리학교의 1년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번 해에는 어떤 곳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일이 있을지 대학 1학년 생활을 예측해보자. 편집자주



◇상반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매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열리는 최고 결의 회의다. 정족수인 제적인원의 10%가 참석해야만 성사될 수 있다. 총회에서는 총학생회의 운영보고를 듣고 학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투표권 행사 이외의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아닐까.

◇대동제

체육대회가 끝난 후 양 배움터에서 연이어 열리는 학교 축제. 3월 동안 양 배움터 전체에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고, 여러 연예인의 공연도 볼 수 있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가을학기에도 대동제가 한번 더 열린다. 타대들도 비슷한 시기에 축제가 열리니 한번쯤 방문해 즐기는 것도 하나의 묘미!



◇2학기 총장선거

재임한 박철 총장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8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번 해 말 2014년의 새로운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우리학교 총장은 중임에 제한이 없고 4년마다 선거가 이뤄진다.

◇하반기 정기총회

<음주주의보> ※새내기라면 1년동안 여러행사에 불려다닐 각오는 필수다. 그때마다 빠지지않는 술자리. 어느때가 가장 위험한지 살펴보고 간 건강도 미리 챙겨놓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서울배움터 보궐선거

지난 해 12월 글로벌배움터는 34대 총학생회 '채움'이 당선된 반면 서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 선거를 비롯해 여러 단과대학 선거들이 잇따라 무산됐다. 따라서 단과대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개편했고, 3월 개강 후 보궐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



◇체전

학과별로 팀을 이뤄 보통 5~6종목의 경기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르게 된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공식적으로 결석할 수 있다. 대신 정당한 방식으로 유고 결석계를 제출할 것!

◇7월 사이버외대 신축 교사 완공

지난 해 2월 21일(화) 공사를 시작해 서울배움터에서 통행에 불편을 겪던 사이버외대 공사가 1년 6개월만인 이번 해 7월 완공된다. 이번 해 2학기부터 바로 사용 가능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대표자 선거

총학생회를 비롯해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등의 여러 학생대표자의 선거가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집중돼 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학교에서도 행사해 보자. 사진은 지난해 당선된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이다.

◇2013학년도 등록금 동결

세 차례의 걸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해 등록금이 동결됐다. 매년 초 등록금심의가 이뤄진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스무살 우리캠퍼스 5기 - 이준원, 김미애]

우리금융그룹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할 때도
우리는행이야말로 우리세대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참 금융!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We

- **우리청년전용창업대출**
- 당신의 꿈, 우리가 키워드립니다!
- **우리신세대통장**
- 스마트세대를 위한 금리우대 통장
- **우리청년/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 우리 청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우리은행**

“선배님, **학식** 뭐가 맛있나요?”

새내기에게 추천하는 외대학식 1등은 ‘치돈’

메뉴를 확인하기 전에 일단 둘러쳐서 먹고 본다. 긴 줄이 들어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천천히 메뉴를 고른다. 오늘의 2200원 메뉴는 ‘미네르바 정식’, 1800원 메뉴는 ‘상추살고기비빔밥’, 1400원 메뉴는 ‘뽕뽕’이다. 부드러운 햄박스테이크와 바삭한 치킨까지 비엔나 토스트가 들어 개개 짭짤하게 장식된 미네르바 정식, 뽕을 싸는 누고 없이 고기와 상추가 함께 비벼져 나오는 상추살고기비빔밥, 이 가격에 받을 수 없을 만큼 오징어와 양파가 푸루히 들어가 있는 열끈한 뽕뽕을 두고 천열한 고민이 시작됐다.

점심시간,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학생식당(이하 학식)을 찾은 재학생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학교는 △경향신문 경제연구소(ERISS) △현대리서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이 공동 조사한 ‘대학지속가능지수’의 ‘학생식당만족도’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은 학식. 13학년 새내기를 위해 수많은 메뉴 중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반드시 맛봐야 하는 메뉴’를 엄선해 봤다. 학식을 찾은 재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베스트 메뉴를 통해 그 맛을 상상해보자. 지금 입가에 군침이 고이는 건 건강한 신체의 젊음이라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이 설문은 이번 달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서울배움터 인문관 학생식당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밥 류)



3위 김치알밥 (2,200원)

- 볶은 김치와 알이 적당한 양념 속에서 더불어 버무려 집. 뜨거운데 허겁지겁 먹다가 입 천장 까지는 것. (사회·정의 08 남학우)
- 그냥 진리. 먹고 싶다. 침이 고인다. (글경·경영 12 여학우)

2위 뚝배기불고기 (2,200원)

- 따뜻하고 진하다. (일본·일본 10 여학우)
- 웅글진 뚝배기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저것은 뭘까. 불고기만 쓱쓱 골라먹은 뒤 남은 국물에 밥 비벼먹으면 아, 천국이구나. (글경·경영 11 여학우)
- 나의 여성스러움을 잠시 놓아두고 뚝배기에 밥 푹 푹 말아 우겨우겨 먹게 되는 맛. 한 번은 외국인들이 이런 날 파와 뚝배기에 밥을 말길래 엄지 올려줬다! 외대인이려면 학식으로 한뚝배기 하 실례에~ (동양어·터키어 12 여학우)



1위 치즈돈까스 (2,200원)

- 밖에서 파는 치즈돈까스보다 치즈가 더 많이 들어 있다니. (중국·중국 06 남학우)
- 잘 튀겨진 고기 안에 있는 치즈를 끊어 먹는 그 맛은 환상이다. (인문·사학 07 남학우)
- 일반 치즈돈까스는 치즈만 들어있지만 외대 치돈에는 치즈에 야채가 곁들여진다. 신선한 기름 사용한 거 다 티 날다. 이걸 사실 만원짜리. (중국·중국 03 여학우)
- 당신이 외대에 와서 치즈돈까스를 먹어본 적이 없다면 아직 진정한 외대를 맛보지 못한 것이다. (글경·경영 12 여학우)
- 이 사이의 시신경과 뉴런 사이로 치즈의 끈적함과 소스의 새콤달콤함이 스며들어 중추신경계의 조깅바사를 통해 대뇌의 전두엽까지 말랑말랑 쫄득쫄득 해졌다. (법·법 08 남학우)



(면 류)

3위 쟁반국수 (1,400원)

- 내가 취사병 출신이다. 이 정도 위생수준이 나오려면 갖은 고생을 해야 한다는 걸 안다. 외대 면 요리의 야채는 밖에서 파는 면 요리의 야채보다 신선하다. (사회·행정 07 남학우)
- 양이 많아서 좋다! (상경·국통 07 남학우)
- 빨강다. (사회·언정 07 남학우)



2위 스파게티 (1,400원)

- 힘 소스도 도전해보면 어떨까. (법·법 04 남학우)
- 저예산에 맞추면서도 최대한의 영양과 볼로냐 지방의 소울을 제공하고 싶은 영양사님의 마음이 담백 담긴 버섯과 고기 그리고 최대 3회 리필의 향연. (영어·영어 04 여학우)



1위 잔치국수 (1,400원)



- 하얀 실파래들을 끝없이 집어삼킬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의 탐욕이다. 적당히 끊어 먹지 않으면 목구멍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남은 국물을 어찌 할까 고민하다가 그릇을 든다. 이 세계를 집어 삼키는 기분이다. 청정한 감각을 느낀다. 다시 시작하자. (영어·영어 08 남학우)

맛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현장 인터뷰와 외대학보 페이스북을 통해 모은 것이며 학생들의 요구로 인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설문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수제 치즈돈까스는 학식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들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뽑은 메뉴이기도 하다. “메뉴로 올리기 전날 고기를 다지는 데만 온종일이 걸린답니다.” 학식에서 근무한 지 17년째라는 한 직원의 말이다. “치즈돈까스가 가끔씩만 나오는 건 이러한 이유죠”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사진제공 유서영(중국·중국 11)

우리학교 학식 저렴한 이유는

우리학교 학식의 가격은 고정돼 있다. △밥류는 2200원과 1800원 △면류는 1400원 △떡볶이와 김밥, 토스트는 1000원 △라면은 1200원이다. 라면에 300원을 추가하면 떡이나 슬라이스 치즈를 곁들일 수 있다. 또한 여름메뉴인 과일빙수는 2500원이다. 이 가격은 2005년 8월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인상없이 유지됐다.

이렇게 우리학교 학식이 외부 식당은 물론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월등히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있다. 이윤이 목적인 외부업체와는 달리 학교는 식당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의 질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식은,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 임대식당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고용한 조리사들이 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리한다. 야채부터 고기까지 원재료를 정성들여 다듬고 조리하는 직원들은 영양사를

비롯해 대부분 10년 이상씩 근무한 ‘달인’들이다. 40대와 50대 연령층이 주를 이루는 45명의 직원들이 숙련된 솜씨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이 높다.

그렇다면 재료를 아끼지 않고 쓰는데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학식에 적지는 없는 걸까. “적자는 매년 더 증가하고 있어요.” 이재명 총괄기획팀장은 말했다. 그는 “적은 수익에 비해 재료구입비와 인건비는 매년 오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외부인에게 가격인상을 한 이후로 외부 이용객이 줄어 수익도 20% 정도 감소했다. 학식의 이런 적자를 메우는 것은 △인문관 매점 △음료자판기 △외대서점 △기념품점 등에

서 나오는 학교의 수익이다. 학교는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사업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맛있는 학식’이라는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폭이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학식 가격을 올릴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김중오 후생복지과장은 “학생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당장 올리기가 어렵다”며 난처하다는 듯 미소지었다. 그는 “맛 좋은 학식을 앞으로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식을 많이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학식공간이 좁아 학생들이 불편한 게 아쉽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임채윤 기자

earTHome

다른 나라의 새내기는 어떨까?

13학년 새내기들이 입학했다. 공식적인 학교 행사에 처음 참가하는 새내기들의 모습은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어 어느 곳에서든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새내기가 환영받는 행사가 있고 선후배간 친목도모의 자리가 있을까? 다른 나라의 새내기들은 어떻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지 우리학교에서 만난 외국인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세실(Cecil), 프랑스

프랑스에도 한국처럼 대학교 입학식이 있나요?

입학식은 따로 없어요. 프랑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하기 보다는 집 근처의 가까운 학교로 가기 때문에 대학생활 자체에 있어 한국보다 관심이 적은 편이에요. 대학에 가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알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프랑스의 대학교에서는 선후배관계는 어떤가요?

프랑스에서는 같은 과 선후배끼리 한국만큼 돈독하지 않아요. 대신 학과활동 외의 특별활동 내지는 동아리 등의 다른 모임에서 교우관계를 쌓는 편입니다.

독일에서의 대학 새내기 생활은 어떤가요?

독일 새내기들은 파티를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도 1학년 때는 여느 학생들과 똑같이 새로운 친구와 문화를 많이 접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맥주의 나라인 만큼 술도 자주 즐깁니다.

독일 대학에서 선후배사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독일은 한국에 비해 선후배 개념이 약한 편이고 선후배간에 교류할 일도 크게 없어요. 가끔 선배를 통해 상급수업에 대해 질문하는 일은 있지만, 선후배들이 함께 모임 일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새내기들이 새로 입학하면 같은 과의 선배들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학교 근처 바(bar) 순회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종종 있어요.



▲알렉산드라(Alexandra), 독일

요르단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 학생들처럼 음주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요르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돼요. 그래서 한국에서와 같은 술자리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같은 과 사람들과 친목도모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내기들은 선배들에게 언제든지 연락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고학년들은 새내기들에게 이리저리 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새내기 시절에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1학년 때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한 친구가 없어 많이 외롭고 심심했어요. 게다가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아주 넓어서 많이 헤매기도 했는데, 어떤 선배는 잘못된 위치를 알려줘서 한참 헤매고 다녔던 것이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매년 선배들이 새내기들을 골려먹느라 자주 발생하지요.



▲무함마드(Muhammad), 요르단

신민지 ·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세계 브리핑

오바마, 재정 감축 막기 위해 의회를 재촉하다

이번 달 5일(화)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발동되는 시퀘스터¹⁾를 지연시키기 위해 소규모 예산 감축과 증세에 관한 패키지 법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는 시퀘스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 지출 축소로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맥코넬 센터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법안에 대해 "눈길을 끌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두고 현재 여·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부지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각주

1) 시퀘스터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을 연간 1100억 달러씩 총 1조 2000억 달러만큼 자동으로 삭감하는 조치. 3월 1일 발동될 예정이다.

튀니지 정치인 암살, 시위에 불을 붙이다

2011년 1월 아랍의 봄 이후, 또 다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달 (월)수 튀니지의 야당 중 하나인 민주애국자당의 지도자 초크리 벨라이드가 총격으로 숨졌다. 그는 평소 이슬람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왔기에, 이번 암살이 정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에 따라 시민들은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 있는 내무부 건물 외부에서 초크리 벨라이드의 죽음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여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시위를 벌이던 군중의 일부는 "우리는 제2의 혁명을 원한다"고 외치며 정부에게 항의했다.



▲총격을 받아 숨진 야당 지도자 고(故) 초크리 벨라이드

중국, 소득격차 완화하기 위한 계획 발표

중국은 부유층과 빈민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날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이번 달 (월)수에 승인했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지니계수²⁾가 0.474를 기록해 부의 불평등이 심한 국가로 간주되는 0.35의 수치를 훨씬 넘어섰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 도시노동자 임금의 40%수준까지 끌어올려 빈민층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 지웨이 수석 중국경제학자는 "이번 계획은 지니계수에 대한 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빈민층의 비중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서 기득권층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계속 심각한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각주

2) 지니계수 계층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홈스토리 Hufstory

임재윤 기자

한국어

새내기와 정든내기의 첫 만남

새내기 : 안녕하세요. 선배님!

정든내기 : 안녕하세요. 후배님.

새내기 : 말씀 편하게 하세요. 선배님~

정든내기 : 그럴까? 하하. 우리 밥 먹으러 갈래?

새내기 : 우와! 우리학교의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대학생활에 대해 많이 알려주세요.

정든내기 : 따라오렴.



몽골어

Шинэ оюутан: Та сай н бай на уу?

신 어유팅: 타 샌배노?

Дээд курсын оюутан: Та сай н бай на уу?

데드 유르승 어유팅: 타 샌배노?

Шинэ оюутан: Та надад хүндэтгэлийн үг хэрэглэж хэрэггүй.

신 어유팅: 타 나다드 훈드트기를 우그 히릭리찌 히릭구이.

Дээд курсын оюутан: Тэгэх үү? Хаха.

Хоёулаа цуг хоолонд орох уу?

데드 유르승 어유팅: 티기 후? 하하.

허요라 축 허런드 어러 호?

Шинэ оюутан: Өө, Сургуулийн хавьд ямар дажгүй зоогийн н

газар байх вэ? Танилцуулаад өгөх үү?

Их сургуулийн амьдралын талаар надад заагаад

өгнө үү?

신 어유팅: 우, 소르골링 합드 아마르 다찌구이 저깅 가자르 베호 웨?

타나스초라드 우구 후?

이흐 소르골링 암드라링 타라르 나다드 자가드 우구 누?

Дээд курсын оюутан: Дагаад ирээрэй.

데드 유르승 어유팅: 다가드 이레레.

번역 주수현(동양어-몽골어 09)



이란어

A: سلام

쌀림

B: سلام

쌀림

A: خوبی؟ چطوری؟

쌀림. 쿠비? 체토리?

B: برویم. مرسى.!! الان باهم برویم ناهار بخویم؟ هاهاه!

쿠밤 델씨!! 런 버함 베림 너허르 보코림? 허허허

A: بچه خوب! رستورانهای خوبی را بهم نشان بدهید.

베리레 히 زندگی در دانشگاه هم معرفی کنید.

체 쿵! 레스토랑 언허에 쿠비 러 베함 네션 베다히드.

다르 버레에 젠데기 다르 더네쉬거함 머하르피 카니드

B: بویا! برویم.

비어 베림

이란에서는 새내기와 정든내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어 A,B로 대신함

번역 안정원(동양어 · 이란어 11)



이성하 영어학과 교수, 한국언어학회 회장(영어교육 78)

기르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포용하며 아는 것이 많아 같이 있으면 재미있다. 책을 통해서 전문성이 길러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 너무 피상적인 활동에 몰려다니고 여유로운 시간을 TV보는 데에만 써버리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을 아깝게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종종 나는 TV보는 시간의 길이와 지성인으로 성숙하는 깊이 사이에는 정확한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된 나의 자원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되어 새내기로서 이룬 캠퍼스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 앞에 무한히 열려진 내 인생을 생각하며 내가 펼쳐갈 내 인생은 어떤 것일까 흥분이 됐다. 벌써 30년이 훨씬 지난 일이다. 대학도, 사회도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러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가 만들어지는 대학의 중요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다. 때 학기 학생들과 상담을 하는 포트폴리오에서 나는 제자들에게 △자기 관리 △대인관계 △목표 성취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발전시켜 갈 것을 독려하고 당부해 왔다.

자기관리의 측면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넓고 깊게 만들어서 지성인으로 성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책 읽기다. 책 읽기의 중요성은 수없이 많이 강조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책 읽기인 듯하다. 특히 이 시대가 이미지 시대가 되면서 텍스트는 더욱더 제자리에서 밀려나는 듯하다. 책을 통해 작게는 지식을 얻지만, 크게는 새로운 여러 개의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확실히 세상을 살아보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고집이 세고 답답하고 응축하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생각이 열려 있고 남을 잘

대인관계의 측면에서는 남을 이해하고 남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해의 대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다. 이제 지성인의 세계에 왔으니 가족을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의무를 진 부모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남성, 한 여성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일은 마치 알을 깨고 나와 새가 되는 것처럼 의식의 전환을 경험하는 일이다. 또한 남을 섬기는 일은 지성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대학교육을 받는 것 같지만 아직도 대학생은 비교적 소수의 선택된 엘리트 집안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이 단순히 직장을 구하기 위한 취업 대비 과정, 경쟁 기술자 양성 과정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을 배려하여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품위를 갖추는 훈련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엘리트란 단어가 '선택하다, 뽑아내다'라는 어원에서 왔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평범한 다수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단어이다. 이 다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엘리트가 아니다. 대학 생활 중에도 가족에게만 기대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지나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모두는 '너는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랑의 흔적을 남겼노라고, 내가 이 세상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이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성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산 것이 될 것이다.

목표 성취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자세와 우선순위에 의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긍정적인 사람은 늘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정신적인 동력이 있다. 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항상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 또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매길 줄 안다. 이 세상에는 이루어지는 꿈과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꿈 사이의 차이점은 이루어지는 꿈에는 우선순위와 마감일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목표를 세우면 그 일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자신이 정한 마감일까지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삶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세계가 보이는 외대에 왔으니, 이 세상을 이끌어갈 멋진 지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지성인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익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나가며, 자신이 세운 목표는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을 통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대학은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기르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자기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고상한 지성인들이 우리 대학에서 많이 나와 이 세상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장웅 KBS아나운서(경영대학원 97)

달콤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우선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외대 후배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 제자백가 가운데 하나인 도가의 창시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비롯된다. 싹튼 탐도 작은 풀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데서 시작된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상엔 도전에 대처하는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 보단 일단 그 일 자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도전에 실패하다 보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비결한 변명이지 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패배주의에 길들인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에 휩싸였던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쳤다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겠지요?

자신의 몸 뒤에 경험이란 매트리스가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를 할 때마다 그 매트리스의 두께는 조금씩 두꺼워지겠지요? 경험이란 자산이 조금씩 쌓이는 것이니까요. 여러 번 넘어져 본 사람은 그 매트리스가 자신을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을 소중한 경험을 통해 인지하게 됩니다. 웬만한 실패는 견뎌낼 수 있는 내성도 생기구요. 하지만 한번도 넘어져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매트리스의 용도조차 모른다는 거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겁이 나서 그쪽으로 쓰러지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패를 통해 소중한 경험이란 매트리스를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매트리스가 커만큼 쌓여 여러분이 넘어지

지 않도록 받쳐 줄 겁니다.

저도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KBS공채만 세 번을 봤습니다. 타방송사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3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헛수로 4년이란 시간이 걸렸지요! 중학교 때부터 정해놓았던 인생의 목표였기에 고배를 마셨을 때의 아픔도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번의 실패에 고개 숙이기보단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하며 석탑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다시 준비를 하며 그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얻게 된 사람들과의 인연, 소중한 추억들, 직업에 대한 애착 등은 지금 방송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도전과 실패를 맞본 사람만이 성과의 소중한 맛을 더 잘 알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성공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 미미 판단하지 마십시오! 도전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실패의 경험을 맛보십시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사설

역사가 된 오바마 대통령의 외대 방문

지난 해 3월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연했던 장소가 '오바마 홀'로 명명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국내 대학에서 강연한 뜻 깊은 행사였다. 점에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 '오바마 홀 명명 계획'이 알려진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홈스라이프'에 올라온 90여 개 학생 의견 대부분은 '오늘을 즐기라/창피하다/짜증난다/오바하지마/오바마홀 명명에 동의한다' 등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학교 집행부와 학생들 간 연령 차이에서 기인한 시각 차이, 사람 이름을 지명이나 건물 명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한국적 문화, 강대국과의 우호적 교류라면 일단 사대주의로 규정하고 싶은 비딱한 반항심 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생각의 틀을 조금 바꿔보면 오바마 홀 명명의 당위성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작년 6월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요즘 대학 생 절반 이상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6월 25일에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서울올림픽이 1988년에 개최된 것을 알면서도 서울올림픽 개막일이나 폐막일은 모른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 사건이 '육이오', '팔팔 올림픽' 등으로 명명되는 방식에 기인한 것인데, 만일 '육이오' 대신 '오공 전쟁'이라 명명했다면,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짜보다 연대를 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쯤 판매되지 않는 팔팔 담배', '팔팔 고속도로' 등의 명칭 대신 서울올림픽 개막일을 딴 '구일철 올림픽', '구일철 담배', '구일철 고속도로' 등의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사람들은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보다 개막된 날짜를 더 잘 기억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50년쯤 흘러, 우리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학교에서 강연했던 것을 반드시 알게 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학교 강당을 오바마 홀로 명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에서도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수십 개 지명이나 시설물에 미국 대통령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 강당을 오바마 홀로 명명하는 것은 외대 발전에 중대한 역사적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일 뿐이며, 이를 '유명인의 명성을 빌린 날 뜨거운 광고'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오바'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1월, 대학가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등록금 심의'이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란 한 해 학교의 전반적인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록금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학교 측과 학생대표단이 수차례 모여 회의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등록금 탓에 대학 학생회들의 주요한 사업 중 하나는 이 등록금 심의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을 낮추는 것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의 94%에 달하는 대학들이 이번 해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간 쓸쓸하지 않을 수 없다. 표면상으로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인사와 동결 결정이지만 실질적인 학생들의 어려움은 과연 해소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학생들이 내야 할 등록금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이같은 결정이 사회 분위기에 맞추는 것과 동시에 등록금을 몇 년간 동결, 인하하면서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 최적적선의 등록금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학교 또한 분지 2편에서 전한 소식대로 우리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지난 달에 있었으며 그 결과 이번 해 등록금은 동결로 결정됐다. 학교 측은 등록금을 인하 대신 학생을 향한 지원을 늘리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7+1제도 지원금,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등을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100%가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학생대표단은 등심위에서 등록금의 인하를 위해 대학 등록금에 관련된 국내법과 등심위를 제제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 후에 결정 난 등록금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지원에 대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때다. 학생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만 진정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등록금 심의이기 때문이다.

외대학보

www.oedae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중섭

편집장 문나운 부장 홍규원

차장 박준서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재운

조교 이현주 정진경

제작 경보미디어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여러분의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평범한 그들이 꿈꾸는 외대

우리학교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재외국민 학생에서부터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학생까지 다양한 새내기들이 외대에 모였다. 이번 해에는 과연 어떤 새내기들이 입학했는지 그들은 물론 정든내기들도 궁금하다. 기가 막힌 입학사연이 없어도, 톡톡 튀는 끼를 발산하는 새나기가 아니어도 좋다. 평범한 새내기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본지는 양 배움터에서 무작위로 5명의 신입생들을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금부터 13학년 새내기들의 풋풋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대학생이 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권지수(이하 권) 감개무량해요. 전 재수를 했는데, 지난 해에는 '합격'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확인을 할 때 처음엔 그게 합격통지표인지도 몰랐어요. 전 산오류는 아닌지, 갑자기 취소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에 등록금고지서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구혜진(이하 구) 무엇보다도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예전엔 저녁 7시만 되도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밤이 되도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지만 대학교 때는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짤 수 있으니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돼요.

신호엽(이하 신) 전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왔는데, 그곳에서 충분히 자유로운 학생시절을 보냈기에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도 특별히 엄청나게 기쁘거나 설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학에 가서 무엇을 배울지가 기대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예요.

송지혜(이하 송) 고등학교 시절에는 입시준비 때문에 많이 초조했는데, 이제는 그런 초조함에서 탈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보고, 알바도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어보는 경험도 해봤고요.

김영혜(이하 김)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공부에 열중하느라 평소 즐겨하던 게임도 못하고 잠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수능시험이 끝나고서는 못했던 게임도 많이 하고, 그간 못 놀았던 만큼 친구들과도 실컷 놀았어요.

기대되는 신입생 생활에는 무엇이 있나요?

김) 아직 완전한 대학생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로망이 있다면, 다른 대학교 친구와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권) 책 들고 캠퍼스를 거니는 모습과 과자를 입는 거요! 과자이라는게 대학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달까요. 과자를 입고 다니는 대학생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구) 전 엔티에 빨리 가보고 싶어요. 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운동 쪽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송) 저도 활동적인 동아리가 좋아요. 그리고 봉사동아리에도 가입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는 의무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신) 전 무엇보다 대학교 강의가 궁금하고, 기회가 닿는 한 학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요.

입학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송) 저는 소박한 스펙이지만 진솔하게 입학사정관제에 도전했어요. 고등학교 때 대중문화연구반, 세계요리활동반 등을 하면서 태국에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한-태 무역관이 되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태국에 관련된 교내활동에 주도적으로 열심히 참여했고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권) 현역 때는 수시에 전부 떨어져서 재수를 할 때는 정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고등학교때의 경험이 아깝다며 부모님께서 입학사정관제를 권유하셨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라 소위 스펙 기회는 좁았지만, 해외봉사나 모의유엔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스스로 열심히 찾아보고 경험했던 게 합격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외대' 하면 흔히 어학과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즈음 이공계 체험전이라는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때 외대에도 이공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공계를 전공해도 외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복수전공으로 어학을 하면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신) 외국어가 특성화 된 대학교인 하지만 언어만 배우게 되면 공부의 폭이 좁아질 것 같았어요. 전 유학생활을 해서 굳이 언어학과에 들어갈 필요를 못 느끼기도 했고요. 상경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이중전공으로 언어를 선택하면 종합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됐어요.

장래희망이 있다면 무엇이고, 외대에서 본인의 진로를 어떻게 펼쳐나가고 싶나요?

신) 전 사업을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인지는 앞으로 공부해보며 결정하고 싶지만요. 지금은 졸업 후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외대가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잘 돼있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권) 저는 뮤지컬이나 영화를 좋아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작품이나 내한하는 해외작품을 번역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통번역으로는 외대가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외대에서도 자부하기 때문에 통번역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실력



① 신호엽(글경·경영 13군, 21세, 재외국민 전형)
② 권지수(영어·영통 13양, 21세, Hufs글로벌재전형(입학사정관 전형))
③ 김영혜(자연·통계 13군, 20세, Hufs 글로벌재전형(입학사정관 전형))
④ 구혜진(이공자전 13양, 20세, 일반전형(학업적성평가트랙))
⑤ 송지혜(통번역·태국어 13양, 20세, Hufs글로벌재전형(입학사정관 전형))

을 탄탄히 쌓을 거예요.

우리학교에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송) 학생들의 꿈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회가 많았으면 해요. 대학교에 공부만 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주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꼈어요. 학생들이 걱정을 한시름 털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등록금 및 기숙사 비용이 인하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지면을 통해 평소 못했던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전해주세요.

권) 재수하는 동안 저를 한 번 더 믿어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요. 학원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과도 고마운 게 정말 많아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공부는 물론 다방면에서 열심히 대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구) 자유전공학부다보니 선배들이 다양한 과에 흠뻑 젖었는데, 여러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선배님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잘 얼어먹겠습니다!

송) 대학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와 달리 표면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만나보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가족같이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진·글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광고>

외대학보, 87번째 수습기자 모집

글솜씨보다 필요한 건 끈기와 열정

외대학보에서 87번째 수습기자를 모집한다. 외대학보사는 1955년 만들어져 올해로 58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학교 유일의 한글 신문사이다. 일반적인 동아리와는 다른, 부총장 산하기구로서 기자들에게는 소정의 취재수당과 기자수당, 언론장학금이 지급된다.

지난 해 2학기 외대학보 기자들은 문재인 전 대선후보, 박근혜 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학 언론인의 관점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선배인 △김진명 소설가 △안우정 MBC PD △장일범 음악 평론가 등을 인터뷰했다.

또한 대학 언론사로는 최초로 총학생회 공약이행 평가 운동을 진행해 전국 대학 언론사들에 이를 전달하기도 했다.

진리에 눈멀고 양심에 아파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대학생을 꿈꾼다면 외대학보에 지원해보면 어떨까. △리포트 작성 능력 상승 △자존감 향상 △주량 증가 △인맥 구축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다. 곧 차장이 되는 86기 임채윤양은 "기자에게 중요한 글솜씨와 배짱은 사실 수습기자를 거치는 동안 자동으로 향상되죠"라며 "지원 시 가져와야 할 건 끈기와 열정이예요"라고 덧붙였다.

(모집기간과 면접일은 정규호인 957호에 기재됩니다.)



▲새내기특집호 마감일인 지난 8일(금) 새벽 4시경, 건물 밖에서 바라본 국제학사 4층의 모습이다. 모든 불이 꺼진 교정에서 외대학보사 홀로 불을 밝히고 있다.